



방한 관광객
2000만 눈앞
백화점 3사 총력
나



Life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송에 새 동지
치료제 상용화 시동
L2



장애인과 동행하고, 나눔문화 확산... '연대의 가치' 실천하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삼양라운드스퀘어

불닭의 매운맛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삼양라운드스퀘어. 그 성장 뒤에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힘이 있다. 장학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역 나눔으로 이어진 '연대의 실천'이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삼양이건장학재단, 삼양원동문화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후원, 인재 양성 등 다층적인 사회공헌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단발성 기부가 아니라 재단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삼양라운드스퀘어의 사회공헌을 상징하는 사례 중 하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삼양라운드어스'다. 삼양라운드어스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식품업계 최초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단순 고용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 참여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2009년 12월 한국 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2010년 10월 법인 '삼양THS'를 설립하며 장애인 고용에 본격 나섰다. 이후 2023년 7월 그룹 차원의 CI 리뉴얼을 계기로 '연대의 가치'를 강조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삼양라운드어스는 하루 5톤 처리 규모의 야채선별장과 400톤 규모의 냉동창고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라면 수프의 원재료를 선별하고 이물질질을 걸러내는 공정을 담당하며, 이렇게 가공된 원재료는 삼양식품



명동 신사옥에서 열린 '하우스-워밍 데이' 행사에서 임직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고 있는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삼양라운드스퀘어

재단 중심 장기적·구조적 나눔 펼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해 단순한 지원 아닌 파트너로 함께 성장

55년간 장학사업... 인재 양성 앞장 삼양원동문화재단 통한 문화진흥사업 먹거리 기업 특성 살려 나눔·문화 결합

'모두 행복한 맛있는 세상' 철학 계승 지역 곳곳 어려운 이웃에 식료품 나눔

에 공급된다. 단순 지원 조직이 아니라, 그룹의 식품 안전과 품질을 책임지는 생산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는 셈이다.

삼양라운드어스는 기술과 인력이 결합된 최적의 작업 환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삼양라운드스퀘어의 사회공헌 철학은 창업주인 고(故) 전중운 명예회장의 신념에서 출발한다. 삼양식품이 아직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겪던 시절, 전 명예회장은 "기업의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철학은 1970년 7월 공익재단 삼양이건장학재단 설립으로 구체화됐다.

재단명에 쓰인 '이건(以建)'은 전중운 초대 이사장의 아호로 '뜻한 바를 기필코 이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름 그대로 삼양이건장학재단은 지난 55년간 장학금 지급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도서 출판과 학술 연구를 지원하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장학 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사회공헌의 외연은 삼양원동문화재단을 통해 더욱 확장됐다. 삼양원동문화재단은 전중운 명예회장의 부인인 원동(遠東) 이계순 여사의 뜻을 담아 2017년 3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이 재단은 문화·예술과 식품의 협업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맛있는 이웃 나눔 봉사단' 운영, 취약계층 지원 등 나눔문화 확산 사업과 함께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한 장학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먹거리 기업의 특성을 살려 '나눔'과 '문화'를 결합한 점이 삼양원동문화재단 활동의 특징이다.

삼양라운드스퀘어와 삼양식품은 사회공헌 활동을 일삼 속 실천으로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간 맛있는 나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전중운 명예회장의 철학을 계승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맛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 본사를 서울 명동으로 이전한 삼양라운드스퀘어와 삼양식품은 이전을 기념해 인근 지역사회에 라면과 스낵 등 식료품 1만 8000식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중구재가노인복지기관, 중림동주민센터, 명동주민센터, 남대문쪽방촌 상담소 등에 전달됐다. 물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과 결식 예방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와 비영리 단체 119사랑나눔회의의 추천을 받아 중부소방서, 서울소방학교, 중랑소방서 등 소방관계 기관에도 기부를 진행했다.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의 의미를 실천한 셈이다.

이와 함께 관계사인 '맛이나 봉사단'을 통해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밤골아이네 공부방' 후원에도 나섰다. 밤골아이네 공부방은 1984년부터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돌봄과 학습을 지원해온 공간이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정기적인 간식 후원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걸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도.

삼양식품 관계자는 "병오년 한 해의 시작과 본사 이전을 계기로 지역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삼양라운드스퀘어가 중부소방서와 중부경찰서 연계 중구재가노인복지기관에 제품을 기부했다.

메트로 한줄뉴스



▲올림픽 피겨 '채점 논란' 지속... "심판들 자국 선수에 점수 더 주는 경향"
▲프로야구 한화, 노시학과 '계약기간 11년' 307억 계약...역대 최장기 계약 /사진 뉴시스

▲K리그 전북현대 '정정용 체제' 시험대...對 대전하나시즈 데뷔전 첫 승
▲'부상 복귀' 조규성, 출전 16분 만에 통증 호소...월드컵 출전도 '먹구름'

▲여자 배트민턴 안세영, 내달 영국 '전영오픈' 行... '커리어 하이' 도전 지속
▲박나래 첫 경찰조사 참석...스트레스성 탈모·일상생활 불가능 호소